

■ 괴운(機雲) 칼럼



논어 자한편(論語 子罕篇)과 공자절사(孔子絶四)

권해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복야공파 36세)

오늘은 유가(儒家) 성전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예지(微子)의 보고(寶庫)로 불리는 논어(論語) 가운데, 제9편 자한편(子罕篇)에 담긴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논어 자한(子罕)편은 총 30장으로 불행한 세대에 대하여 주로 공자의 덕행을 논하면서 주옥같은 명언들이 많다.

제9편 4장에 보면 "자절사(子絶四)러시니 무의(毋意), 무필(毋必), 무고(毋固), 무아(毋我)"라시다. 즉 공자께서는 네 가지가 전혀 없어섰다. 이는 '네 가지를 끊다'라는 의미인데 즉 네 가지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다. 공자는 사의가 없었으며, 기어코 그렇다고 단언하지 않으셨으며, 고집하지 않으셨고, 아집을 부리지 않으셨다.

무의(毋意)는 함부로 억측을 하지 말고 상식과 편견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모든 일을 조사하며 진행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기 직감에만 의존해도 위험하다. 어떤 일을 예단하기 전에 그것이 진실과 다름이 없는지, 지나치게 편견에 의존한 판단은 아닌지 늘 경계해야 한다. 무필(毋必)은 자신만 옳다고 믿지 마라. 그리고 옳고 그름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세상에 100% 한쪽만 진리인 것은 없으며, 설령 맞더라도 조건부인 것이 대부분이다. 자기 믿음도 중요 하지만 그것을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믿고 내세우면 주위에 적이 많아진다.

특별히 대단한 사안이 아니면 주변 사람과 이견 충돌은 '다름'으로 풀어나가야지 '옳고 그름'으로 풀어서 안 된다. 무고(毋固)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마라. 살다 보면 자기 주관을 관철해야 할 순간이 분명히 있다. 특히 결단력이 중요한 리더라면 그렇다. 그런 순간에 책임을 바탕으로 밀어 붙이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까지 추진해야 할 일은 별로 없다.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지 쉽다. 웬만한 것은 적당히 넘

어가고, 중요한 것만 취할 줄 아는 요령이 중요하다. 무아(毋我)는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우리 사회는 전면에 나서는 사람에게 그렇게 관대하지 않다. 그 사람이 잘 나서면 잘난척한다고 욕하고, 그냥 나서면 나만대고 비하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을 자신감보다는 자만감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으니 나설 때에는 늘 조심해야 한다. 이상 네 가지는 공자가 오랜 경험과 통찰을 통해서 절대로 하지 말 것을 강조한 중요한 덕목이다. 이 네 가지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겸손(謙遜)이라 할 수 있다. 겸손한 태도는 시대를 불문하고 중요한 처세임이 분명하다.

다음은 9편 24장에는 "자왈(子曰) 주충신(主忠信)하며, 무불여기자(毋友不如己者)오,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니라." 이는 공자께서 "충(忠:성실)과 신(信:신의)을 주로 삼으며, 나만 못한 자를 벗하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고쳐기를 꺼리지 말라"고 하셨다. 이는 충신하고 유덕자를 사귀며 자기 잘못을 고칠 줄 알아야 군자라는 것이다.

27장에도 "자왈(子曰) 세한연후(歲寒然後)에 지송백지후조야(知松栢之後彫也)"니라. 라고 하셨다. 이는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뒤에 시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위난의 때에 가서야 비로소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에도 인용하고 있다. 다음 제28장에 "자왈(子曰) 지자불혹(知者不惑)하고, 인자불우(仁者不憂)하고, 용자불구(勇者不懼)"니라 하셨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당황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마음이 조용하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자, 인자, 용자의 특징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비록 공자(기원전 551-479)께서 5세기에 언급한 말씀인데도 후세에도 참고할 명언들이 많다.

검교공파 임원회의 개최

검교공파총회(회장 권정택)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1시, 경북 상주시 공검면 공검한우에서 신년 하례회 겸 임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권정택 회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국민의례, 시조 테사공에 대한 망배 등 식순에 의거 진행하였다.

권정택 회장은 인사말에서 금년 한해는 여기 오신 여러분과 권문 모두가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20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총회에서 송대재의 활성화 방안으로 상임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구성은 차후에 하되 임원단에 일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임원회의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토론에 임하였다.

토론에서는 갑론을박하다가 파종순, 회장, 총무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문중 및 지역별로 10명을 선정하는 등 총 13명으로 결정하였다. 상임위의 활동 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결



권정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권정택 회장은 멀리에서 오신 파친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면서 식대를 대납하였다. 차후 일정은 통신 연락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권영호 검교공파총회 총무부장

동아문명의 발전과 한중인문학의 역할

권중달(중앙대 명예교수)

본 기사는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가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중 인문학 포럼에서 한국측 대표로 기조 강연한 연설문이다. 인문학으로 세계를 품미하고 있는 갈등과 비극적인 전쟁의 원인을 어떻게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면 사정상 몇 회에 걸쳐 실는다. <편집자 주>

5. 나오는말: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문학의 역할(계속)

본래의 인문학은 인간성의 말씀을 가져올 수 있는 갈등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추측시대(樞軸時代)이후로 인간이 참전한 가장 우수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권력에 봉사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인문학의 배양은 인류를 가치 있는 삶과 행복을 꾸리게 하는 것이며, 날로 발전하는 문명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부작용을 미리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그 자체로 추측시대의 위대한 명성과 가치에 기대면서 오히려 안으로는 비인간적인 탐욕에 이바지하거나 스스로 그에 빠져들어 원래의 기능과 정신을 잃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찾아온 세계의 위기는 문명의 발달에서 온 부작용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동물성을 인문학 정신으로 지도하지 못한 데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계 위기를 인문학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인문학마저 상당한 부분 타락하였으므로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문명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인문학이 스스로 반성하고 원래의 인문학 정신, 즉 추측 시대 현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첫째로 인문학은 이데올로기화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반성해야 합니다.

이데올로기는 인문학에 뿌리를 둔 것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의 것을 고집하고 상대를 수용하거나 이해하기보다는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로 변질(變質)한 것입니다. 이른바 현재 세계에서 난무하고 있는 이른바 '주의(主義)'입니다. 전세기에는 제국주의가 흥미했고, 지금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종족주의 같은 것이 바로 인문학이 변질하여 이데올로기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는 결국 인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동물성을 극대화하여 결국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이 이데올로기를 지도하여 인간이 동물과 달리 사랑, 평화, 생명 존중 등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동물성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권력자를 지도하는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른바 관변학자, 어용학자는 인문학의 이름을 가지고 권력자나 관부(官府)의 논리를 합리화하는데 기여(寄與)하고 있

습니다. 이것은 인문학의 오염(汚染)이기에 여기에서 벗어나 인문학자로서 군주를 지도하는 입장으로 순수한 인문학을 고수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쿠빌라이가 등극한 뒤에 아리부카의 반발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가거정(賈居貞, 1218~1280)이 쿠빌라이에게 보인 모습은 권력(權力)과 부(富)에 대한 인문학자의 태도를 극명하게 잘 드러낸 사례라 하겠습니다.

몽고(蒙古)에서는 좌우사령중(左右司郞中)인 가거정(賈居貞)이 북정(北征)을 따르면서 매번 《자치통감(資治通鑑)》을 펼쳐서 진술하였는데, 비록 군중(軍中)에 있으면서도 아직 책을 덮지 않았다. 하루는 몽고주(蒙古主)가 낭중(郎中)의 녹봉(祿俸)은 얼마인가를 물었더니 가거정이 숫자를 들어 대답하였다. 몽고주는 그것이 아주 아박하다고 생각하고 칙령(敕諭)으로 이를 증액(增額)하게 하였다. 가거정이 사양하며 말하였다. "저의 품질(品秩)로 보면 의당 그러하니 신(臣) 때문에 제도(制度)를 문란(紊亂)시킬 수 없습니다."

승려인 자총(子聰, 劉秉忠, 1216~1274)이 상주하여 가거정을 참지정사로 삼았더니 또 사양하고 말하였다. "다른 날에 낭관이 이예(例)를 원용하면서 집정(執政)으로 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정차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입니까?" 배수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인문학자의 자존심(自尊心)이 중요한 바탕이 된 것입니다. 가거정의 경우처럼 인문학의 강론이 부와 지위로 흔들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문학자가 잃는다면 인문학은 소생할 길이 없는 권력자의 하수인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인문학자의 자존감의 확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어야 권력과 부에 대한 지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문학자는 누구에게가 대치 않고 스스로 높은 가치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보통의 인문학 강의는 대중의 처지에서 보면 그 말이 그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강의하는 사람이 원전전체를 보기 보다는 인텍스식 방법으로 짜깁기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내용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인문학이란 시간 낭비로 느껴지는 공염불(空念佛)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문학자는 짜깁기를 넘어서 자기만이 말할 수 있는 깊이와 폭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수준을 확보할 때 대중적인 확산이 가능합니다. 들은풍월로는 대중을 설득시키지 못한



다는 말입니다. 필자는 스스로 유능하다거나 뛰어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199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통감학(通鑑學)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치통감 294권을 역주하였고 계속하여 속자치통감 220권의 3분의 2의 역주를 마치고 지금 그 완성을 위하여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들은풍월로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당장 대중에게 바로 다가가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중들은 자치통감이라는 서명(書名)을 들었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도 간간히 들은풍월로 알려졌습다.

그러나 들은 풍월이 아니라 실제로 원전에 대한 연구를 근 30여 년간 지속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까지는 없지만, 한국 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꾸준히 이 책을 찾아서 읽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사람들이 자치통감에 대한 구독열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은 현실적 조건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성숙할수록 인문학, 인간학에 대한 갈증이 높아가고 들은풍월로 만족하지 않으면서 실제 원전을 접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서서히 늘어나는 증거입니다.

서울지역종친회 사적지 참배

회원 여러분!

권율 도원수 행주대첩 제432주년 기념행사가 아래와 같이 봉행됩니다. 임진왜란 시 권율 도원수는 1차 금산 이치대첩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쳐 곡창 지대인 호남을 지키셨고, 독산성에서 기발한 기지로 왜군을 물리쳤으며, 행주산성에서 2,000여 명의 군관민을 이끌고 왜군 30,000여 명을 크게 물리친 행주대첩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을 지킨 문무를 겸비하신 자랑스러운 선조이십니다.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12시 30분~13시 30분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총장사

♣ 집결지 : 경의중앙선 능곡역 1번 출구앞 광장 오전11시

♣연락처: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 총 무 권지은 010-5413-0287

2025년 3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 347차 정기산행 안내

회원 여러분!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서울산악회 제347차 정기산행 및 시산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5년 3월 16일, 일요일 10시 (시간엄수)

♣ 집합장소 : 5호선 개화산역 1번 출구

♣ 산 행 지 : 개화산

♣ 준 비 물 : 간식, 개인 필요장비 지참

♣연락처:

▶ 회 장 권정찬 : 010-5392-6222 ▶ 등반대장 권오윤 : 010-9027-6179

▶ 총 무 권혁구 : 010-2240-4242

2025년 3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